

정청래 30.5% 김민석 29%... 與 차기 당대표 지지도 팽팽

합당 논란에 리더십 흠집난 鄭, 지선결과 변수 金총리, 경기·인천·무당층에서 상대적으로 우세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정청래 현 당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지지세가 팽팽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누가 민주당을 이끌 차기 당대표로 적합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0.5%가 정 대표를 꼽았고, 29.0%는 김 총리를 선택했다.

두 사람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5%p에 불과하다.

합당 논란으로 위축된 정 대표의 리더십 회복 여부와 정 대표 체제에서 처리되는 지방선거 결과가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별로 보면, 정 대표는 18~29세(정청

래 37.3% vs 김민석 32.4%), 40대(35.7% vs 27.9%), 50대(33.9% vs 28.2%)에서 우위를 보였고, 김 총리는 30대(22.6% vs 26.2%), 60대(32.1% vs 32.7%), 70대 이상(20.2% vs 26.7%)에서 근소하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김민석 41.8%, 정청래 39.1%)에서 두 인물 간 격차가 미미했고, 민주당 지지층+무당층(김민석 39.3%, 정청래 34.2%)에서 두 인물 간 격차가 오차범위 내였다.

정치성향별로는, 정 대표가 진보층(41.6% vs 33.0%)에서 앞섰고, 중도층에선 정청래 25.0% vs 김민석 30.3%로 팽팽했다.

지역별로 보면, 정 대표는 서울,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에서 다소 앞섰고, 김 총리는 경기·인천에서 정 대표에 우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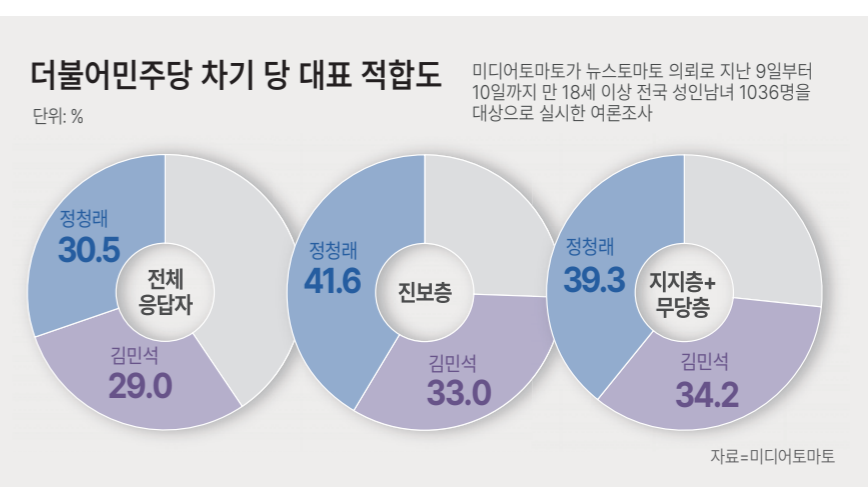


한편,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지지도는 지난 조사 대비 긍정 평가가 0.8%p 상승한 58.4%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2.2%p 하락한 36.6%였다. 금·부정 격차 오차범위 밖인 21.8%p로, 지난 조사 18.8%p 대비 격차가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긍정 68.9%, 부정 28.0%), 50대(긍정 59.8%, 부정 37.5%), 60

대(긍정 61.6%, 부정 32.7%), 70세 이상(긍정 53.4%, 부정 36.4%)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긍정 60.2%, 부정 36.5%), 인천·경기(긍정 61.2%, 부정 33.0%), 광주·전라(긍정 80.7%, 부정 18.0%)에서 긍정 평가가 오차범위 밖 앞섰다.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정청래(오른쪽) 현 당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지지세가 팽팽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긍정 83.9%, 부정 14.2%), 중도(긍정 55.2%, 부정 37.7%)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 보수(긍정 29.9%, 부정 64.4%)에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45.3%(1.4%p↑), 국민의힘 31.9%(1.9%p↓), 조국혁신당 4.7%(0.8%p↑), 개혁신당 3.3%(0.5%p↑), 진보당 1.5%(0.3%p↑) 등으로 조사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를 겨차 오차 범위 밖인 13.4%p로, 지난 조사 10.1%p 대비 격차가 늘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응답률은 2.3%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장동혁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 불참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미나 기자

張, 靑 오찬 1시간前 일방 파기... 靑 “아쉽다”

민주 “국민에 무례... 어이없어” 국힘 “회동 전 입법 폭주 자행”

여야는 1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청와대에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여야대표 오찬 회동에 불참한 것을 두고 서로를 향해 “예의없다”며 설전을 벌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모처럼 국민께 희망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민생과 국의

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 장 대표가 먼저 요청하고 이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라며 “시간이 압박해 일반적으로 취소한 것은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힘의 무례함으로 무산된 청와대 오찬이 무산됐다”며 “국힘 정말 어이없다. 본인이 요청하고 본인이 깨고, 지금 뭐하는 짓인가”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도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낮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럼에도 청와대는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재명 정부는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대화를 통해 협치 길을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봐도 오늘 오찬은 이 대통령과 정 대표 두 분이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오찬 불참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서 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 대표가 ‘오늘 오찬 취소가

예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야당 대표를 불러 오찬 회동을 하자고 한 직후에, 대법원장조차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그런 법안을 일반적으로 통과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86명의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주장하면서, 모임을 만드는 것은 국민들께 진정 예의 있는 행동인가”라고 반문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률안과 대법관 증원하는 법률안이 통과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설날을 앞두고,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 위해서 오찬을 함께하기로 약속을 한 그날(11일),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그것도 야밤에 단독으로 위헌적인 사법 파괴 악법인 4심제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과 오찬을 하루 앞두고 정청래와 추미애 라인에 무력사위인지 여부는 알 수는 없다. 혹은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돼 있는 소위 약속된 대원인지도 알 수는 없다”면서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야당 대표에게 모욕을 주고, 야당을 능멸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에서는 민생을 논하자면서 밥을 내밀고, 뒤에서는 헌법을 파괴하겠다고 칼을 휘두른 격”이라며 “같은 날 한 손으로 협치를 논하고, 한 손으로 입법 폭주를 자행하는 민주당의 비열한 이중 플레이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12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출범 기자회견에서 상임대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국힘 “공취모, 이름부터 괴이하고 한심한 모임”

〈면에서 계속〉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취소로 없애 버리겠다는 것이고, 이미 3심에서 유죄 취지의 확정판결이 나왔던 공직선거법 위반은 대법관 증원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1차 뒤집기를 시도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헌법소원으로 헌재까지 가서 두 번 뒤집기를 시도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회 역사에서 무수히 많은 의원 모임을 보아왔지만, 이름부터 이렇게 괴이하고 한심한 의원 모임은 처음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대장동, 위례 신도시 항소포기, 4심제 도입, 대법관 증원, 공소 취소 선동, 이 모든 일들은 하나의 강물로 모여드는 하천과도 같다”며 “결국,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은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의 발밑에 두기 위한 사법부 장악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개 재판의 ‘임기 중 일시정지’에 만족하지 않고, 임기 후에도 안전보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3개의 재판은 공소

취소로 없애 버리겠다는 것이고, 이미 3심에서 유죄 취지의 확정판결이 나왔던 공직선거법 위반은 대법관 증원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1차 뒤집기를 시도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헌법소원으로 헌재까지 가서 두 번 뒤집기를 시도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법들이 명백한 유죄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진실을 결코 감추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의 공소 취소 선동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고 하는 역풍을 불러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대통령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라며 “이미 국회, 정부에,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너무 많다. 필요 이상으로 많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 86명이 또 대통령의 변호인을 자처한다”고 꼬집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바쁜 일상 속, 당신을 토닥여줄 요가에서이

느려도 괜찮아

아사나(요가 자세)를 할 때 찾아오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아팠지만 몸을 늘리고 비틀고 거꾸로 서는 과정에서 마음이 말을 걸었다.

한영임 지음 | 272쪽 | 15,000원
도서출판행복에너지

너무 애쓰지 마라.

괜찮다.

일만 하지 말고

좋아하는 것도 하고 살아라.